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 “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현장 논의”

주거복지협의체...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상황 점검·신혼부부 주거지원 의견 청취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(수)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종합육아지원센터*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상황의 점검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.

* (마포육아종합지원센터) 보육·양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부모·교직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된 육아 지원 기관

- 영아놀이실, 아이숲 놀이터, 시간제 보육실, 구립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유

- 이번 회의에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주거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, 육아, 여성정책, 청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. 또한, 실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참여해 의견을 교환한다.

- 신혼집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혼인을 감소와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저렴한 주거공간 확보와 더불어 아이키우기 행복한 주거 공간 조성의 필요성, 수도권 등 좋은 입지에의 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.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김 장관은 이후 진행된 주거복지 로드맵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는 “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”을 당부하며
 - “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통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강조한다.
- 또한, “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.”는 점과
 - “앞으로도 주거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.”라는 이야기를 한다.

2018. 5. 9.
국토교통부 대변인